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예비학교에 대한 일 고찰

황 석 규 (제주고고학연구소)

### I. 들어가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주사회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한다. 제주결혼의 10%는 국제결혼으로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비해 2배 이상의 수를 점유하고 있다. 거주외국인의 수가 급속한 증가는 제주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변화시키고, 그들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논의되기에 이른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목적의 일환으로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2012년부터 중도입국아동 및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학교적응 그리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려는 방안으로 다문화 예비학교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예비학교는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 선진 다문화사회에서는 다문화 예비학교에 유사한 사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예비학교의 내용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다문화 예비학교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II. 한국의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은 2000년도가 시작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급속하게 공교육 제도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평균 취학률은 66.8% 수준이며, 초등학교는 78.2%로 가장 높고, 중학교는 56.3%, 고등학교는 35.3%로 나타나면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취학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취학을 하더라도 학교에서의 부적응, 학업성취도 저하, 중도탈락, 따돌림 등이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 지원이 절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선진화 방안에 중도입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예비학교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있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학령기에 놓여있는 중도입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하게 하여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중 하나의 사업이다. 중도입국 아동과 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여 공교육에 진입할 연령대에 속한 자들로 다문화가정과 외

국민근로자 자녀들로 구성되고 있다<sup>1)</sup>.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으로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된 자녀들을 의미한다.

<표 1>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	29,303	8,196	2,541	40,040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중	2,676	986	626	4,288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외	1,813	465	348	2,626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계	33,792	9,647	3,515	46,954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참조: 한-한국출생 자녀, 중-중도입국 자녀, 외-외국인근로자 자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5년)

<표 1>에서 보듯이 2014년 다문화가정 학생은 총 67,806명으로 2012년부터 매해 만명 단위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67,806명 중 84.8%에 해당하는 57,498명은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이지만, 2012년도에 85.3%에 비해 점차 한국출생 자녀의 비율이 적어지고, 이와 비교해서 중도입국과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취학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입국 아동과 청소년에 해당하는 수는 10,308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15.2%에 달하고 있어서 결코 낮은 비중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3월 2일 “다문화학생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안에 중도입국 자녀들의 공교육 진입 지원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 16개시도에 26명을 선임하고, 외국인 등록과 국적 취득 시에 공교육 진입 안내를 지원하고, 2011년 전국에 시범적으로 존재하는 3개의 예비학교를 2012년 26개로 확대 운영을 확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위탁하여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을 위한 “다문화학생 예비학교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한국어 성취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한국어 습득 및 학업성취 정도를 측정하며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력서류 구비가 어려운 중도입국 학생에 대해 원활한 학력심의가 이루어지도록 7개 언어의 학력심의 평가지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표 2> 전국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현황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비학교 수	3	26	52	80	100

<표 2>에서 보듯이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이 정규학교에 들어가 기 전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예비학교’를 지난해 80개에서 올해 100개로 확대하고 있으며, <표 3>에서 보듯이 예비학교의 유형은 직영형, 위탁형, 센터형으로 구분하고 있

1) 난민 자녀들도 이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난민의 수가 적은 상태로서 일반적으로 다문화 예비학교 학생으로 포함됨에도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통계에는 단순히 중도입국 자녀의 수에 포함하고 있다.

다. 직영 예비학교는 일반학교에서 특별학급 형식으로 운영되는 예비학교를 의미한다. 직영 예비학교 학생들은 일반 과목을 일반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며, 특별시간을 할애 받아 특별학급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의 대안교과를 공부하게 된다. 직영형의 다문화 특별학급은 중도입국 학생 15명 이내로 편성된 무학년 복식학급이며, 전담교원을 배치해 운영된다.

위탁형 예비학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의 대안교과와 보통교과를 모두 수업할 수 있는 인정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예비학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위탁형 예비학교 학생들은 일정기간(6개월+ α) 위탁기관에서 대안교과와 일반교과를 배운 뒤 원적교(일반학교)로 복귀하게 되며, 위탁기관에서 이수한 수업시수를 인정받게 된다.

센터형 예비학교는 학력인정기관은 아니나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로 인정받아 예비학교로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이다. 예비학교 학생에게 일정기간(6개월+ α)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의 대안교과를 방과후, 주말, 방학 등에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하며, 필요시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인 인근 일반학교에 해당기관의 강사를 파견하여 방문순회교육 형식으로 한국어, 한국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비학교이다(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2, 110~111). 센터형 예비학교는 2014년 자율형 예비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표 3> 다문화 예비학교 유형 및 2014년 운영 형태

구분	직영형	위탁형	자율형
교과운영	통합교육 (보통교과+ 대안교과)	통합교육 (보통교과+ 대안교과)	대안교과 프로그램
학적생성	예비학교(일반학급)	일반학교(원적교)	일반학교(원적교)
2014년	70교	9교	1교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2, 111, 교육과학기술부 2015.

<표 3>에서 보듯이 다문화 예비학교의 70교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단지 10교가 위탁형과 자율형 예비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에는 100개로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구분하면 <표 4>와 같다.

<표 4> 2015년 시도별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수

시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계
도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계	9	4	3	4	1	5	5	1	26	8	5	5	7	6	5	5	1	100

### III. 선진 다문화사회의 사례

#### 1. 영국

영국의 중도입국 자녀들은 대부분 동유럽과 영연방 국가에서 이주한 노동자 자녀, 난민 자녀, 집시 유목민 자녀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은 최저 생계에 시달리는 가정 경제 형편을 지니고 있고, 영어활용능력이 떨어져 있고, 영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 역시 낮은 정도이

다. 따라서 영국은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공교육 진입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에 따른 정책이 필요한 상태여서 이를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은 Sure Start Local Programme(SSLP)의 교육복지정책으로 지역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단위 학교에 Sure Start Children Center를 설립하여 교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서 중도입국 자녀들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전 지역단위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을 하는 방식이지만 Sure Start Children Center을 설치하여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만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전체 저소득층 자녀 중에 학업성취 저하를 보이는 학생들과 함께 특별교육을 전개하는 Sure Start Children Center를 운영하고 있고, 2013년 영국 전 지역에는 3,116개의 Sure Start Children Center(이후 Center)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취 저하를 보이는 학생 대부분은 집시와 난민 가정 자녀를 위주로 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가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언어교육**

비영어권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및 난민 가정 자녀는 영국사회 적응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교육과정은 언어교육이다. 그래서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기초 언어교육이 필요성에 따라 그들의 언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중도입국 자녀들이 영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 언어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학교 내에 Center가 설립·운영되면서 언어교육은 사회생활보다 학교 교과목 이해 증진을 위한 언어교육으로서의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로 변화하여 교육하게 된다(김진희, 2011, 50). 학교 정규 수업 전후를 활용하여 Center를 운영하며, 다른 과목수업이 진행될 때에도 상황에 따라 Center로 중도입국 자녀를 이동시켜 EAL 전담교사를 통한 EAL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EAL 언어교육은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및 과학 교과 학습에 도움을 주는 언어논리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서 중도입국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진학을 돕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2) 학교 가정 중개 프로젝트(School Home Liaison Project)**

런던 도이세산 보드(London Doicesan Board)에서 처음으로 학교 가정 중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심각한 무단결석과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녀의 학습동기를 불어넣도록 유도하고 있다(김진희, 2011, 51).

따라서 학교는 ① 학부모에게 학교생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② 학부모에게 출결, 지각의 문제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자녀의 태도 훈육을 지도시키고, ③ 학부모가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언어교육 및 양육을 지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④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가정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게 한다(김진희, 2011, 51).

## 2. 독일

196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기의 독일은 외국인근로자를 국경 근접한 국가들(특히 터키, 폴란드)로부터 초청(Gastarbeiter)하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된다. 2008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체 인구에 이주배경이 있는 독일 거주민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는 8.9%에 해당하고 있다. 이주배경이 있는 독일인은 국제결혼 가정, 독일국적 취득 외국인가정 그리고 러시아에서 통독과 함께 다시 독일로 귀환해 온 독일뿌리를 지닌 이주배경이 있는 독일인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이주배경이 있는 러시아에서 귀환한 2-4세대 독일인들은 외국인처럼 독일어 사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결국 독일의 경우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난민 자녀 그리고 러시아 귀환 독일민족 가족 자녀들이 속하게 된다.

2000년 OECD 국가 간의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평가 결과 독일 초등학생 성적이 너무 저조한 결과로 나타나자 독일정부는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독일 초등학생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입국 이주 가정의 초등학생 성적 저하가 독일 전체 초등학생 성적 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게 된다. 특히 독일어 읽기 과목에서의 성적 저하가 이와 연관되어 수학 및 다른 과목의 성적 저하로 진행되었다고 파악되었다. 즉 독일어 언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 자녀들이 독일 전체 성적 평가 저하의 원인으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은 중도입국 초등학생들의 언어교육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주문한다.

또한 2003년 재차 실시된 PISA 결과는 이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중도입국 학생에게만 성적 저하의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고 이주가정 자체의 독일어 습득의 필요성을 지적하게 된다.

### (1) 통합교육

독일의 일반학교 대부분은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특별반 혹은 준비반을 운영하지 않고 독일 학생들과 평등한 수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연방주 학교들은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독일어교육과 독일 일반 사회생활에 대한 기초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에서 상호문화의 이해를 넓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 나라와 문화 간의 다양한 관계를 보여주는 예들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한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지닌 사람들의 공존이 일상생활에서 흥미와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학생들은 지구상의 여러 지역의 음식, 주거, 학교, 직장 등의 비교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과 성인들의 생활조건이 독일과 다른 방식으로 충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지구상에 불균형하게 분포된 부와 빈곤의 원인과 그런 불균형적인 부와 빈곤의 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오은순 외, 2008, 69).

### (2) 특별반과 준비반

독일의 몇 연방주 학교들은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특별반 혹은 준비반을 운영하면서 중도입국 학생의 독일어 습득을 돕고 있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특별하게 동일한 국적을 가진 아동들을 묶어서 그들의 모국어를 통한 독일어 습득을 교육하기도 한다.

특별반은 중도입국 이주가정 학생 15명 이내로 구성된 작은 학급을 구성하여 특수 양성된 교사들에 의해 집중 독일어 코스를 받게 한다. 또한 일반학교 내 준비반은 중도입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며, 중도입국 학생 중 소수일지라도 일반 중등학교(김나지움)에 진학하게 하거나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특별반과 준비반에서 이주가정 학생들이 이중언어의 습득을 장려하고 있다. 모국어 활용 능력이 뛰어난 이주가정 학생들이 독일어 습득과 활용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학 연령을 넘긴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보통 1년의 독일어 과정을 실행하면서 직업준비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결국 독일은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에 모든 학교가 가담하지 않고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몇 연방주에서 학교 내 특별 및 준비 학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반과 준비반이 운영되는 연방주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유입된 지역이다. 이는 독일 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교육을 학교 제도권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다.

### (3) 특수학교

독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 자녀 즉,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크게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주 초기 외국인근로자 학생은 독일어 활용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이들은 일반학교에 특별반이 존재하지 않으면 취학하기 전 혹은 취학하더라도 정규수업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특별반이 없는 독일의 대부분 연방주의 일반학교는 중도입국 자녀를 언어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Förderschule)에서 일정기간 독일어 특별수업을 받게 하고 원적학교로 보내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 중도입국 학생인 경우 입주신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규 학교의 입학절차도 밟을 수가 없어 특수학교에서 독일어 기초 수업도 받을 수가 없다.

### (4) 언어교육

독일에는 외국인을 위한 2개의 독일어 과정으로 DaF(Deutsch als Fremdesprache)와 DaZ(Deutsch als Zweitesprache : 제2언어로서 독일어)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 두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다. Daz는 이주민 대부분이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들의 제1언어를 모국어로 책정하고, 독일의 언어를 제2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와 비교해서 DaF는 낯선 언어로서 독일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외국인으로 하여금 일상 독일어 습득을 넘어설 수 있는 언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Daz는 일상 혹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일상적인 언어 활용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이라 보면, DaF는 학문적인 언어 활용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까지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DaF는 대학 내 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며, 현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독일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독일은 학교 현장에 Daz보다는 DaF의 전문 교사들을 파견하여 이주민 학생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언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이 실시되고 있고, 이를 통해 PISA의 평가 결과에 높은 학업성취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일본

일본은 외국 이주자의 유입 시기를 크게 둘로 나뉜다. 첫 시기는 일제 식민지정책 시기로서 노동자 유입이 시작되는데 대부분 조선에서의 유입이며 이들을 일컬어 오래된 이민자(Old Comer)라고 부른다. 둘째 시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시기로서 남미와 동남아에서 유입되는 귀환자 및 노동자로 구성된 이민자로 새로운 이민자(New Comer)로 명명되고 있다.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중 한국·조선인이 전체의 28.7%를 점하여 가장 많은 수이고, 그 뒤를 중국, 브라질, 필리핀, 페루, 미국 등의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일제 식민지정책에 의한 이주노동자 “올드커머”들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1980년대 이후의 “뉴커머”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6년 말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등록자 수가 208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63%에 달하고 있어(이태주, 2007), 인구비율 면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다.

#### (1) 센터교

현재 일본에서 이주민 자녀를 위한 공생(다문화)교육은 정부차원에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이주민 자녀를 위한 공생(다문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 이뤄지는 다문화교육으로서 뉴커머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전부터 제일한국(조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거주하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오사카에서 진행되는 다문화교육은 센터교라고 명칭하며 초·중·고등학교 4 곳을 지정하여 방과 후 특별지도를 진행하며 양 국가의 정체성 함양을 돕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녀들은 일반 수업시간에는 자신들이 속한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받고 있어서 정규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이주민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센터교는 주 1~2회 국가별에 따라 다양한 나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들이 센터교를 방문하여 국가별 모국어와 자국의 문화를 수업하게 된다. 물론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센터교도 생겨나게 되었다.

#### (2) 한국인 학교

오사카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학교가 있다. 학교법인 백두학원은 1946년 제일조선인의 자녀교육을 위해 건국학교를 설립하고, 1976년에 한국인학교로 인가를 받고 초·중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교훈은 자주(自主), 상애(相愛), 근검(勤儉), 정상(精詳), 강건(剛健)이며, 민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가 무료이지만, 건국학교는 사립으로 운영하면서 수업료를 받고 있고, 일본정부에서 40%, 한국정부 8%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학생은 제일한국인자녀 78%, 한국 주재원 자녀 15% 그리고 일본인 자녀 7%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과 민족교육과정으로 구

분되며, 민족교육과정은 국사와 한국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교육과정은 한국어 활용 능력 수준에 따라 4 단계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3) 한국인 특별학급**

오사카에는 센터교가 운영되기 이전인 1992년부터 재일한국인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에 의해 한국 이주 학생 대상의 민족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2008년 오사카지역에는 15개의 학급에 17명의 교사를 파견되어 재일한국인 2, 3세를 대상으로 민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 모두는 일본에서 출생하여 지금껏 생활한 경험을 지닌 재일한국인이다. 민족학급은 대부분 재일한국인 자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주일에 1번 45분 수업으로 진행되며 모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민족학급의 교사들은 민족교육도 주요하지만 특히 교사들이 주요하게 진행하는 교육은 멘토링 지원 사업이다. 교사들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자신들 보다 나은 일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교육하는 멘토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IV.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예비학교의 실태**

**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유입과 그 자녀 현황**

<표 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유입과 그 자녀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 계	외국인 근로자	결 혼 이주자	유학생	기타 외국인	국제결혼 가정자녀
2008년	5,052	1,710	1,201	532	875	734
2009년	6,941	2,240	1,444	796	1,281	1,180
2010년	7,343	2,563	1,609	857	1,024	1,290
2001년	8,499	2,917	2,007	899	1,096	1,580
2012년	10,406	3,719	2,158	926	1,590	2,013
2013년	12,656	4,461	2,423	906	2,508	2,358
2014년	15,568	5,214	2,696	851	3,136	2,6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표 5>에서 보듯이 2008년 제주 거주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의 수는 5,000여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12년에는 10,000여명으로 2배에 이르더니, 2014년에는 15,000여명이 훌쩍 넘는 3배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20,000명이 훨씬 증가하는 이주배경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주에 거주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결혼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의 국제결혼이주민의 증가세는 매해 200~300명 수준으로 안정되어있다. 하지만 유학생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와 비교해서 외국인근로자, 기타 거주 외국인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인 중도입국자녀의 수는 <표 1>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제주(한국)에서 출생한 관계로 중도입국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식에 나타나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난민 자녀, 외국에서 출생하여 부모의 결혼관계로 포함된 국제결혼가정 자녀이기 때문에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통계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주요한 사실은 한국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가족동반불허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동반하는 사실은 불법이며,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공교육 진입은 법적으로는 허가되지 않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 공공기관 및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제주에 유입된 전문직 외국인근로자는 자녀의 동반을 허가받고 있어, 이들 자녀는 합법적으로 공교육에 진입하여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결국 전문직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제외하면 중도입국 자녀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높아진다.

<표 6>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	외	계	국	외	계	국	외	계	국	외	계	국	외	계
'14	120	10	130	521	27	548	113	8	121	42	3	45	796	48	844
'13	85	9	94	390	21	411	93	6	99	30	0	30	598	36	634
'12	78	7	85	352	15	367	77	4	81	27	0	27	534	26	560
'11	45	4	49	280	13	293	54	2	56	20	0	20	399	19	418
'10	19	0	19	227	10	237	34	0	34	15	1	16	295	11	306
'09	25	3	28	186	7	193	29	0	29	12	0	12	252	10	262
'08	17	2	19	152	2	154	20	0	20	7	0	7	196	4	200
'07	13	1	14	108	0	108	14	0	14	3	0	3	138	1	139

참고: 국: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지칭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표 6>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연도별 증가세를 보여주는 표이다. 2007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불과 139명이었던 것이 2014년 844명으로 거의 8배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수도 2007년에는 유치원에 1명에 불과했던 수가 2014년에는 48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학생은 초등학교에 27명이 취학하고 있어서 56.3%에 달하고 있다. 앞 선 설명처럼 이들 외국인근로자 학생은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 학생이 아닌 전문직 외국인근로자 학생으로서 부모가 제주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자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중도입국 자녀로 포함되고 이는 예비학교 학생의 대상이 된다.

결국 제주에 유입된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단지 추정치로 2015년 80여명 정도에 해당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제주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실태

### (1) 자율형 다문화 예비학교 설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예비학교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산하에 존재하는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 다문화 예비학교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획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설치되게 되었다. 교육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16개 시도에 다문화 예비학교를 설치하여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및 난민 자녀의 공교육 진입과 조기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하는데 지원하고 있고, 이 방안에 근거하여 제주에서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역할은 제주도교육지원청 산하의 제주다문화교육센터가 담당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본토의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특수한 상황에 있음에 이런 교육환경에 맞는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① 어느 한 지역에 중도입국 자녀의 수가 편중된 상태가 아니다. ② 센터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③ 지역단위 학교에서 중도입국 학생만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교사와 이중언어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 및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없다.

제주 다문화 예비학교는 제주의 교육 환경에 따라 직영형이나 위탁형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역단위 학교에서 직영형의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없고, 실제 운영주체인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허가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 예비학교 유형으로 자율형으로 지정되게 되었고, 예비학교의 명칭도 “노뎃돌 다문화 예비학교”<sup>2)</sup>로 정하여 전국 유일의 독특한 다문화 예비학교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 (2) 노뎃돌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노뎃돌 다문화 예비학교는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가 미숙하고, 심한 문화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의 어려움에 놓인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제주(한국)문화 습득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운영한다.

노뎃돌 다문화 예비학교는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예비학교 강사를 확보하고, 예비학교 대상학생들을 찾아가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적학교와 예비학교 대상학생이 희망하는 시간에 원적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한다. 또한 방과 후에 교육을 희망하는 예비학교 대상학생들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5년 노뎃돌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시간은 1주일에 2일(4시간) 한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1주일에 1일(2시간) 제주(한국) 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표 7> 다문화 예비학교 학생 수

2) 노뎃돌이란 말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발돋움하기 위해 대문 앞에 놓은 큰 돌을 의미한다.

구 분	다문화 예비학교 학생 수	비 고
2012	10개교 16명(초10교)	2012년 9월 시작
2013	14교 24명(초12교 21명, 중2교 3명)	
2014	10교 16명(초9교 14명, 중1교 2명)	
2015	12교 17명(초10교 14명, 중2교 3명)	2015. 5. 31.기준

노들뜰 다문화 예비학교는 2012년 9월에 10개교 초등학교 중도입국 학생 16명으로 출발하였다. 2013년부터는 중학교 중도입국 학생을 포함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중도입국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 학생 수는 2013년에 24명으로 확대되었으나 16~17명 선으로 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노들뜰 다문화 예비학교의 교육과정은 2012-13년과 2014-15년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제주(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2014년과 2015년은 제주(한국)문화 체험 교육과정이 생략되고, 방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에서 제주(한국)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전담강사는 교원자격증(초등, 국어, 사회, 역사)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며, 국어(한국어)와 역사 혹은 사회(다문화) 관련 학과 전공자를 한시적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특별학급 논의

현재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급별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관련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위탁형과 자율형 다문화 예비학교보다는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직영형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을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며, 매해 학교 내 특별학급의 수를 확대할 방침에 있다. 2014년 다문화 예비학교의 수는 80개교로서 이 중 70개교가 직영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5년 100개의 다문화 예비학교가 확대되는데 위탁형과 자율형은 확대하지 않고 직영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 V. 미래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예비학교에 대한 고찰

중도입국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부적응과 중도 탈락의 빈도수가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 아주 높은 수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 사회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비작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도 중도입국 학생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예비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점차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영국의 교육시스템과 유사하게 학교 내에서 통합교육을 우선하고,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는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의 다문화 예비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정보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직영의 특별학급이 아닌 자율형의 독특한 교육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의 다문화 예비학교는 점차 운영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의한 모습의 변화만을 추구하거나 다른 지역의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직영형의 다문화 예비학교의 운영방식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제주의 다문화 예비학교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직영형과 자율형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 중도입국 자녀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구제주시권과 구서귀포시권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할 직영형의 다문화 예비학교 즉 학교 내 1개씩의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한다.

(2) 구도심권을 벗어난 지역은 특별학급이 존재하는 학교에 취학하기가 접근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자율형 다문화 예비학교의 지속성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에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제주다문화교육센터가 지속해서 중도입국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3)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다문화 예비학교는 특별학급으로 운영되는 직영형과 제주다문화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자율형을 동시에 운영되어야 한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자율형 다문화 예비학교가 지속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도입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예비학교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다문화 예비학교의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도입국 아동과 청소년 중에는 고등학교 취학연령을 지닌 청소년의 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 전담교사는 한시적으로 채용되고 있고, 매해 재채용 및 새롭게 채용되고 있고, 급여도 현실적으로 열악하여,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KSL를 제작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KSL의 한국어 구성은 일상생활 한국어 교육에 충실하고 있다. 영국의 EAL과 독일의 DAF처럼 학교 수업 이해력을 증강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의 개발과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도청과 교육청간의 논의가 지금까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고 각각의 예산도 논의 없이 책정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민간부문과의 연계에도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현실적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 학교적응력 및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이 다문화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역시 공공부문에서 지원해야만 한다.